

찰스 디킨즈의 『위대한 유산』에 나타난 우정의 아포리아*

구승본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우정의 아포리아에 대한 윤리적 고찰
3. 우정의 파괴와 우정의 지속 가능성: 핍과 조의 우정
4. 동일시와 교감을 통한 우정의 불변성: 핍과 매그위치의 우정
5. 나오는 말

* 이 연구는 2021년도 경상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재원으로 수행되었음

** 경상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찰스 디킨즈의 『위대한 유산』에서 핍과 조, 핍과 매그위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정의 양상을 고찰하고 우정이 갖는 상호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아포리아의 개념을 이용해 탐색한다. 아포리아는 해결될 수 없는 모순을 뜻한다. 우정의 불변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판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바탕으로 자크 데리다는 불변의 우정은 자아의 이상적 이미지가 타자에 투영되는 것으로 실현 불가능 하면서 동시에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질 들뢰즈는 한계 상황들과 비밀들이란 친구 간에 존재하는 갈등이 억압된 것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불안한 우정의 관계가 역설적이게도 우정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우정은 초월적 기의와 같은 진리라기보다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이행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자아의 개인적 욕망으로서 우정의 개념은 자아가 아닌 타자를 통해 교감의 형태로 보존되고 영속화된다는 우정의 자아 파괴적이며 자아 보존적 모순의 논리를 핍과 조, 그리고 핍과 매그위치의 관계를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찰스 디킨즈, 위대한 유산, 우정, 아포리아, 사건, 교감, 불변성

1. 들어가는 말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의 열세 번째 소설이자 1860년부터 1861년까지 『일 년 내내』(*All the Year Round*)에 연재된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은 일인칭 화자이자 주인공 핍(Pip)의 자서전적 회고의 서사로서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자아의 각성 및 인간관계에서의 가치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다. 소설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사건들을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핍이 유산을 받기 전의 삶으로, 어린 시절 그가 탈옥한 죄수와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건, 미스 해비섬(Miss Havisham)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저택 새티스 하우스(Satis House)에서 본 미스 해비섬의 양녀 에스텔라(Estella)에 대한 성적 환상을 품게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핍이 이름 모를 자선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형 조 가저리(Joe Gargery)와 함께 지내던 고향 마을을 떠나게 되서 신사가 되기 위해 런던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사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핍의 자선가는 그가 상상했던 미스 해비섬이 아닌 바로 어린 시절 그가 마주쳤던 탈옥한 죄수 아벨 매그위치(Abel Magwitch)임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환상이 파괴되는 것 등이다. 그 과정에서 핍은 특히 그가 새티스 하우스를 방문한 후부터 문맹이고 세련되지 못한 조에 대해 품었던 수치심과 그를 멀리하려 했던 자신의 속물적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매그위치의 그를 향한 일관되게 표현되고 진정성이 담긴 애정에 대해 깨닫게 된다.

디킨즈의 이 작품이 출판되었을 당시의 비평가들, 특히 E. S. 델러스(Dallas)는 『타임즈』(*The Times*)에 실린 이 소설에 대한 논평에서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낸 주인공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구성은 디킨즈의 초기 작품인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와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올리버의 경우 브라운로우 씨(Mr Brownlow)가 그의 삶을 개선한 은인이라 하면, 핍의 경우 죄수 매그위치가 핍의 신분적 상승과 화려한 삶을 살게 해준 은인으로 제시된다. 델러스에 따르면, 『위대한 유산』은 『올리버 트위스트』보다 극적 “효과가 더욱 강한”(Collins 445) 작품이다. 비록

논평가가 어떤 점에서 극적 효과가 두드러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물의 자아 형성 과정의 측면에서 핍은 올리버에 비해 보다 성숙한 자아 인식과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강렬한 극적 효과를 통한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교양 소설(*Bildungsroman*)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¹⁾

『위대한 유산』에 대한 기존 비평은 주인공 핍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과 신분의 상승, 자아의 탐색,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좌절 및 극복, 그리고 성찰의 문제를 다룬 일종의 자아 성숙의 과정 차원에 주목했다. 핍의 서사에서 자아 성찰이 된 시행착오의 주된 내용은 신분 상승을 통해 성적 환상과 사회적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야망을 품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의 속물근성이다.²⁾ 주인공의 성장과 꿈, 환멸, 각성을 통한 정체성을 완성해 가는 의식의 여정을 탐구하는 시도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 유효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개별 주체의 의식과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사건과 다른 주체와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정이라는 주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주인공 핍이 겪는 여러 정신적 갈등, 심리적 불안 및 공포, 환상, 죄책감, 신분 상승의 기회, 계급의식에 따른 가치 평가 등의 문제가 그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과 그가 맺는 관계, 그러나 단순히 친분의 수준을 넘어선 우정의 차원으로 발전하는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고 심화되며 해결되기 때문이다.

-
- 1) 플로리안 슈바이처(Florian Schweizer)는 디킨즈의 『데이비드 코퍼필드』(*David Copperfield*)와 『위대한 유산』을 자아 형성에 관한 소설(formational novel)분류한다. 랜돌프 셰프너(Randolph Shaffner)의 도제 소설(the apprenticeship novel)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그는 자아 형성 및 성장소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물의 다양한 성격적 측면이 개선”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세상에 대한 탐구의 노력”이 제시되어야 하며, “주인공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아와 “세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다 (Schweizer 143).
 - 2) 로빈 길모우어(Robin Gilmour)에 따르면, 빅토리아 시대 새뮤얼 스마일스(Samuel Smiles)가 강조한 ‘자립’과 ‘자기 수양’의 가치는 본래 물질적 차원이 아닌 정신적이고 도덕적 차원의 교양을 추구하는 개념이었지만, 당대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배후에 감추어진 실질적 동기, “신사들의 집단”과의 “고상한 우정” 관계 형성을 기대했다(123).

디킨즈의 소설에서 우정은 개인 삶의 방향과 과정에서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개인과 개인의 우연적 만남과 상호 간의 언어적 혹은 신체적 접촉은 개인에게 심리적, 정서적 자극과 충격을 제공하고 개인의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연구는 핍이라는 개인의 자아 성장과 자기 발견이라는 주체 중심의 논의에 집중되었거나 자아가 진보와 자립을 통한 성공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커다란 기대로 인해 좌절되는”(Pykett 167) 양상에 천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 대 개인, 주체 대 주체 간의 관계에서 자아가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를 성립시키는 조건으로서의 타인의 존재와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모티브로 우정이라는 개념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극화되고 구체적으로 재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³⁾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정이 단순히 두 인물 간의 유대관계 형성의 양상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상호 모순된 양상, 우정의 본질은 불변성이지만, 우정이 변해야만 우정의 불변성이 가능해지는 이율배반, 친구에 대한 애정과 보살핌은 타자로서의 친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타적 소망이면서, 자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아의 이미지가 타자에게 투영된 결국은 자아의 이기적 소망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소설 속, 특히 주인공 핍과 조, 핍과 매그위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아와 타자 간의 우정이 가능하면서 불가능하고, 또한 우정이 해체되면서 동시에 영원히 유지되는 아포리아(aporia)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⁴⁾ 아포리아라는 단어 자체는 ‘통로가 없는 상태’(without passage)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영어의 미국 유산 사진』(*The American*

3) 버트 혼백(Bert Hornback)의 경우 『위대한 유산』을 우정의 소설로 파악하고 우정의 주제로 인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우정에 대한 역설적이고 이율배반적 양상에 대한 고찰이 아닐뿐더러 우정에 관한 철학적 논의 및 인식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4) 핍의 우정은 조와 매그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허버트 퍼킷(Herbert Pocket), 비디(Biddy), 에스텔라, 심지어 미스 해비섬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인 우정의 아포리아의 양상이 우정이라는 중심 플롯 전개와 함께 극명하게 드러나고 강조될 수 있는 우정은 핍과 조, 그리고 핍과 매그위치의 관계이므로 세 인물 간의 우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에 따르면, 아포리아는 “텍스트 의미에 존재하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 혹은 역설”(84)이다. 이 용어는 특히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Deconstruction)에서 “두 요소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부정하는 관계”(Haddad 7)를 설명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사용된다.⁵⁾

2. 우정의 아포리아에 대한 윤리적 고찰

우정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20세기 후반 해체론과 후기 구조주의를 포함한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자아와 타자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주요 윤리적 개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사회 속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행동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온 철학자들에게 우정은 중요한 윤리적 문제가 되었다. 알렉산더 네하마스(Alexander Nehamas)의 주장대로 서구 철학의 전통에서 우정은 “선한 삶, 순수한 은혜, 도덕적 선”으로 여겨졌다(95).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에서 미덕의 특징은 불변성이라 규정하고 우정이 미덕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항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완전한 우정은 선한 사람들의 우정으로 그들은 미덕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선한 이상 똑같이 서로에게 선한 것들을 바라고 그들 스스로가 선하다.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에게 선한 것을 바라는 자들은 무엇보다 친구이다.

-
- 5) 아포리아는 결정 불가능성(undecidability), 딜레마(dilemma), 이중 구속(double constraint), 모순 명령(contradictory injunction), 이율배반(antinomy), 자기 면역성의 작동 과정(process of autoimmunity)이라는 용어들로도 설명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우리말 번역 없이 ‘아포리아’라고 표기한다.
- 6)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리아’(*philia*), 즉 ‘우정’(friendship)에 대한 사상은 고대 아테네, 로마 공화정, 12세기 영국의 시토 수도회(Cistercian) 수도승들,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의 궁정 유지들, 19세기 초월주의자들, 현대의 분석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논의되어 왔다(Nehamas 12, 13)

왜냐하면 어떤 우연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본래 선하므로 서로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우정은 그들이 선한 이상 지속되고 미덕은 영속되는 것이다.

Complete friendship is that of good people, those who are alike in their virtue: they each alike wish good things to each other in so far as they are good, and they are good in themselves. Those who wish good things to a friend for his own sake are friends most of all, since they are disposed in this way towards each other because of what they are, not for any incidental reason. So their friendship lasts as long as they are good, and virtue is an enduring thing. (Aristotle 147)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우정은 결국 선한 본성을 지닌 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우정이다. 우정 관계를 이루는 주체가 어떤 사람인가가 지속 가능한 우정의 성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그는 “최상의 정의는 우정의 문제”(Aristotle 144)라는 믿음을 갖고 국가 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유대를 이루고 단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정이라고 강조한다. 국가 내의 여러 도시들을 단합하게 하고 입법자들이 원하는 갈등이 없는 시민들 간의 화합은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우정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정이 시민 국가의 이상적 설립의 근간이 되는 이유는 우정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영속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고, 친구에 대한 믿음 혹은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시험 및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확실하고 공고해지기 때문에, 우정을 기반으로 구성된 시민 국가는 여러 갈등 및 분쟁에도 불구하고 분열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에 대한 영속성의 철학은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우정과 시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면서 우정 자체가 불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정은 시간에 대한 의존성으로부터 “맹세와 믿음의 행위로 이동하는 경로”라고 표현한다(*Politics* 16). 데리다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믿었던 우정의 항구성에 대한 도전이자 예찬이다. 데리다는 우정

자체에 영속성이라는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고대 철학자의 우정론에 대해 반박한다. 그러나 그는 우정을 실천하는 인간 주체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상호 서약과 신뢰, 그리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애도하고 기억하는 행위에 근간한 다양한 수행적 활동을 함으로써, 우정은 그 항구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데리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은 영원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우정은 가변적임을 폭로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에 대한 철학을 중세 시대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우정이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를 지탱시키는 조건이라고 설파한다.

만일 친구들 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제거된다면 어떤 가정도, 어떤 국가도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심지어 농업에 근간한 경제 활동조차 불가능해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면, 우정과 사랑의 반대에 해당하는 적대감과 악의를 관찰함으로써 우정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쉽게 알 수 있다. 증오와 내부 분열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집과 흔들리지 않는 헌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정이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Why, if mutual love of friends were to be removed, there would be no single house, no single state that would go on existing; even agriculture [i.e., economy] would cease to be. If this seems a bit difficult to understand, we can readily see how great the power of friendship and love by observing their opposites, enmity and ill will. For what house is so firmly established, what constitution is so unshakable, that it could not be utterly destroyed by hatred and internal division? From this we may judge how much good there is in friendship. (Cicero 55-56)

키케로가 강조한 우정에 있어서 상호 간의 사랑이 함축하는 것은 행동의 규범적 차원에서 우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유보하고 상대방에게 악한 감정에서 비롯되는 폭

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를 보호하고 경건하게 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키케로가 우정론에서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상호 간 합의적 신뢰와 연대는 현실의 차원에서 “깨지기 쉬운 동맹”(Lambert 6)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 전체주의 체제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법에 수동적으로 종속되는 존재만이 아닌 “법을 능동적으로 꾸준히 전달하는 존재로 탈바꿈”(462)하게 된다. 법을 능동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는 자아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자를 향해서 지배적인 통치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개인 간 우정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치적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록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맥락에서 이상적 국가 존립의 이념과 가치로서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아렌트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신뢰에 입각한다고 여겨졌던 우정의 변질 가능성, 우정의 취약성과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정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정의 성립 불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사상가는 미셸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이다. 그는 「우정에 관하여」(“Of Friendship”)라는 글을 통해 “아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다네.”(O my friends, there is no friend.)(140)라는 상호 모순적이며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한다.⁷⁾ 몽테뉴의 이 모순적 주장은 우정의 차별성을 말하는 동시에 자아가 생각하는 이상적 우정의 존재를 부인하는 도발적 발언이다. 우정은 그 가치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인간 사회에는 평범하고 관습적인 우정 관계가 일반적 우정의 양태가 주를 이룬다면,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우정의 모습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몽테뉴는 이율배반적 수사를 통해 우정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항구적 진실성을 간직한 우정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테리다는 몽테뉴가 친구가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일반적 우정과 차별되는 드문 우정은 자아의 이상적 이미지 혹은 자아의 복제(copy)를 뜻하는 것으로 이 우정 관계에서 친구란 “이상적으로 나와 꼭 닮은 존재”이자 “자아와 같지만 향

7) 몽테뉴는 이 발언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주 언급한 발언으로 일상에서의 일반적 우정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행동 수칙이라고 주장한다(140).

상된 존재”이다(Politics 4).⁸⁾ 몽테뉴가 강조한 우정의 아포리아에 대한 데리다의 해석은 우정은 나르시시즘적인 소망을 고유한 특성으로 갖고 있고, 이러한 소망이 친구를 통해서 복제되고 반복됨을 나타낸다. 우정은 나에게 대한 개인적 욕망이 친구를 통해서 투사되고 친구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우정의 아포리아는 자아가 나를 통해서는 생존할 수 없고 자아는 오직 타자인 친구에게서만 생존한다는 자아 파괴적이면서 자아 보존적인 이율배반이다. 우정은 자아의 모습을 간직하는 동시에 자아가 욕망하는 자아의 모습, 즉 자아와 같지 않은 이상적 자아상이 타자의 존재에 끊임없이 투사되고 반영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쇠렌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는 『사랑의 행위』(*Works of Love*)에서 우정은 자아 선호적 혹은 자아 중심적 특질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적 사랑이 “자기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랑”이라면 성적 사랑과 우정은 자아의 “선호적이고 선호도에 의한 열정”을 표출한다(65). 기독교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당위적 명령은 자아의 욕망과 자아가 선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웃이라는 “타자인 당신”(the other-you)이나 “평등한 제삼자”(the third-man of equality)의 선호가 우선시 된다(66). 그러나 성적 사랑과 우정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존경”(admiration)에 근거하고 있고 존경이란 “타자화된 나를 사랑하는 나”(67)라는 자아가 관심과 선호의 중심에 있다. 키르케고르가 정의하는 자아 중심적 우정의 양태는 데리다가 규정하는 우정의 나르시시즘적 욕망의 투사 과정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에게 우정은 자아의 선호와 욕망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존재하면서 그것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란다. 데리다의 경우는 자아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아를 소멸시키고 타자를 향해 존경을 표하지만, 그가 존경하는 타자 속 대상은 타자의 독특한 개별성이 아닌, 소멸된 자아의 변형된 모습, 혹은 이상화된 자아의 모습이다. 키르케고르와

8)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 모두 우정에 대한 논의를 정치와 국가 통치의 문제와 연관시켰듯이, 데리다 역시 친구를 선택하는 문제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를 동일시한다. 그는 “선거 없이 그리고 선택 없이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거나 우호적인 공동체도 없다”(Politics 21)라고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바람직한 시민의 역할 및 임무를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우정에서 친구를 선택하는 문제가 같다고 여긴다.

테리다가 규정하는 우정은 모두 자아 중심적 성향을 포함한다는 특징을 갖지만, 테리다의 경우는 우정 관계에서 자아의 소멸과 함께 자아이지만 자아가 아닌 이상적으로 변형된 또 다른 자아가 출현해서 욕망의 대상으로 타자 속에 위치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키르케고르와 테리다의 자아 중심적 우정의 특성을 좀 더 극단적 이기주의의 차원으로 논의한 철학자는 리처드 푸머튼(Richard Fumerton)이다. 이기주의자가 자기의 행복 달성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푸머튼에 따르면 인간은 우정 관계에 있어서 이기주의자이다. 친구를 선택하는 행위는 자아의 이익 추구와 결부된 주관적 판단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는 친해지고자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 왜 그럴까? 내 생각으로는 거의 항상 적어도 애초에는 자기 이익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흥미롭고 나를 웃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은 따분하고 나를 지루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귀찮게 한다. 누가 흥미롭고 유쾌한 사람인지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We choose to become close with some people, and keep our distance from others. Why? I suspect the reasons are almost always, at least initially, reasons of self-interest. Some people are interesting and make me laugh. Others are dull and bore me. Still others annoy me. It seems almost obvious to me that there are not objective truths about who is interesting or amusing. (Fumerton 465)

우정 관계에는 친구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아의 사심 없는 생각도 존재할 수 있고, 이는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우정과 사랑과 구별되는 기독교적 윤리에 근거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푸머튼에 따르면 우정에는 사적 이기심보다 친구의 행복을 우선 시하는 생각과 친구를 통해서 자신이 흥미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자기 이익의 추구가 공존할 수 있다. 우정 관계에서 친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이타적인 노력이 존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만일 그 친구가 나를 즐겁게 하

고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라면, 자아는 그 친구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그의 공백으로 인해 자기의 삶이 빈곤해졌음을 깨닫는다. 푸머튼의 우정론은 친구 간 이타적 행위와 이기적 행위의 공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이기적 자아의 욕망과 주관적 판단이 우정 관계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정 관계에서 자아는 타자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도, 자아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긴다”(Fumerton 467). 우정이라는 자아와 타자의 상호 관계에서 자아의 행복 추구가 그 어떤 목적보다 우선시 된다.

푸머튼의 말대로, 우정의 본질이 자기 이익의 추구이고 자아와 타자의 관계가 자아의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작동하는 관계라면, 우정은 자아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지배될 가능성이 있고 그 관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없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정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정이 아무리 자아의 이기적 자기 이익의 추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아와 타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trust)를 기반으로 협력한다(Fumerton 470). 신뢰에 입각한 협력은 엘리자베스 텔퍼(Elizabeth Telfer)가 주장한 대로, 우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이다. 텔퍼에 따르면, 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호혜적 봉사, 상호 접촉, 그리고 공동의 추구”(251)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상대방이 행복을 기원하고, 만남 혹은 소통의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상호 유대를 공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갖거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진다면 우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우정에 대한 사상은 텔퍼와는 차이를 보인다. 들뢰즈의 철학에서 우정은 공동체의 평화로운 상태나 자아와 타자가 호혜적 봉사 정신으로 무장한 채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들뢰즈에게 우정의 핵심은 친구 간에 존재하는 심한 차이와 다양한 “한계 상황들”(limit-situations)을 함축한다(*Two Regimes* 332). 친밀함과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의 우정 관계에서도 서로 극복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 언제 표출될지 모르는 소외와 적대감조차 우정 관계에 포함된다. 그렉 램버트(Gregg Lambert)에 따르면, 들뢰즈가 언급한 우정에 존재하는 한계 상황들이란 친구 간에 은밀히 간직하고 있는 의혹, 경쟁, 피해망상, 욕망의 형태를 취하면서, 우정이 시작될 당시부터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event)이다(31). 이 비밀스러운 사건은 가상의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unsayable) 진술, “구현될 수 없는”(unrealizable) 행동, “충족될 수 없는”(unobtainable) 성적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Lambert 31). 들뢰즈가 말하는 우정은 존재의 차이, 관계의 차이, 현상의 차이를 인정할 때 성립된다. 평화로운 합의나 상호 일치나 평등의 형태로 여겨지는 유토피아적 우정의 개념은 사실상 불화와 갈등, 경쟁과 은밀한 증오가 도사리고 있는 긴장의 상태를 의미하는 우정의 개념으로 치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정에 대한 서구 철학자들의 논의 가운데 우정의 아포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정은 이상적인 미덕으로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는 개념으로 구성원 간의 관계 및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희망과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할 수 있고 일반적 우정의 양태와 이상적 우정의 모습은 삶에서 구분이 되고 후자의 경우 찾아보거나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정 관계에서 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이 성립한다. 우정에 존재하는 또 다른 아포리아는 친구의 행복을 바라는 자아의 소망은 자아의 이상과 욕망이 타자인 친구에게 반영되고 그에게서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발견되는 것을 추구하므로, 나의 이익을 버리고 친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사실 친구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행위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아가 친구에게 우정의 관계를 열망하고 지속하길 원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와 함께 있음으로써 자아는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이므로 우정은 자기중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관계이다. 자아의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정 관계가 존재하고 지속되는 이유는 우정은 친구들 간의 이상적인 결합이나 소통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욕망과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존재한다 해도 그러한 불안하고 위협적인 요소들, 표현할 수 없고 표현되

지 말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우정의 파괴와 우정의 지속 가능성: 뫼와 조의 우정

『위대한 유산』에서 뫼의 서사는 그가 조와의 우정을 어떻게 파괴하고 신뢰를 저버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정을 배신한 자신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그들의 우정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역설적 상황을 서술한다. 뫼는 서사 전반에 걸쳐서 조의 그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뢰와 우정의 영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뫼의 자아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신뢰와 평등에 근거한 우정 관계에서 노골적으로 조에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경멸하는 위선적 관계로 변질되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렇지만 서술자 뫼는 서사의 후반부에 조가 어린 시절 뫼의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를 끊임없이 소환하고 그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자기반성의 어조로 회고한다. 과거 이상적 우정의 관계를 형성한 뫼의 모습은 마치 죽은 친구의 이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뫼는 회고적 서사를 통해서 독자에게 이상적 도덕성을 지닌 조를 통해서 상징적 차원에서 죽은 뫼, 다시 말해 이상적 우정 관계를 형성했던 과거의 뫼가 조라는 타자를 통해서 결국 부활 되고 회귀하며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뫼와 조의 우정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파괴되며 또한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들 우정이 파괴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하다는 아포리아는 뫼의 조를 향한 존경과 경멸, 그러나 그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결국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자기 비난의 목소리를 담은 서사로 끝맺음하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묘사된다. 몽테뉴에 따르면 “우정은 소통을 통해서”(136) 이루어진다. 친구 간 소통은 우정의 기본적 도리 중 하나인 “충고”와 잘못된 것을 “교정”하게끔 한다(136). 그러나 몽테뉴는 이러한 우정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비 수평적 관계”(136)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존경이 있을 수 있지만 대등한 소통에서 비롯되는 상호 충고와 교정의 과정이 이루어지

기 매우 어렵다. 핍이 조를 자신과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수평적 우정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핍은 조와의 대화에서 그의 아내이자 핍의 누이인 조 부인이 체벌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종의 회초리인 ‘간질이는 것’(Tickler)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과 조 모두 그녀의 회초리에 희생되는 “함께 고통 받는 자들”(8)⁹⁾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그는 조에 대해서 “나는 항상 그를 몸집이 큰 일종의 아이로 취급했고, 나와 대등한 존재일 뿐”(9)이라고 서술한다. 어린 핍의 조에 대한 친구로서의 인식은 그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누구보다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소통이 가능한 대등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조가 핍에게 조 부인을 가정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사람”(49)으로 인정하면서 그가 매를 맞는 등 혼나거나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자 핍은 매형을 대등한 존재이자 친구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된다.

비록 나는 어렸지만, 그날 밤 이후부터 조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전에 그랬듯이 우리는 그 이후에도 동등한 관계였다. 그러나 그 이후 차분한 시간에 앉아서 그를 바라보며 그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Young as I was, I believe that I dated a new admiration of Joe from that night. We were equals afterwards, as we had been before; but, afterwards at quiet times when I sat looking at Joe and thinking about him, I had a new sensation of feeling conscious that I was looking up to Joe in my heart. (50)

핍과 조의 우정 관계의 파멸은 핍의 로맨스와 환상에서 비롯된다. 그들 우정의 긴밀했던 초기 양상은 핍이 미스 해비섬의 저택에 초대받아 방문하고 에스텔라로부터 두꺼운 신발을 신고 손이 거칠고, 카드 게임의 명칭도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소년이라는 노골적인 놀림과 조롱을

9) 이후 작품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로만 표기한다.

받은 후 급변한다. 핍은 특히 조의 대장장이 견습생이 되어 공식적으로 “엮매인”(bound)(105) 날에 자신의 모습과 신분, 직업, 생활 및 작업 환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그는 스스로를 정말로 비참한 존재라고 판단하면서, 조의 대장장이 직업을 “전에는 좋아했지만, 예전에 좋아했다고 지금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106). 핍은 조의 대장간이 있는 집이 비록 그의 누이의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인해서 유쾌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 집을 성역화한 조의 믿음을 따라서 대장간을 “남자다움과 독립성을 향한 빛나는 여정”(107)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집은 그가 미스 해비섬과 에스텔라를 만난 후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수치스러운 장소로 변모한다. 자신의 현재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곳은 “거칠고 평범한”(107) 장소이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유하고 신비스러운 미스 해비섬과 아름답고 우아하며 고상한 에스텔라가 그 집과 대장간을 보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집을 성역화하고 핍에게 “비범한 학자가 되기 전에 우선 평범한 학자가 되어야 한다.”(71)고 평범함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던 조의 삶에 대한 철학을 거부하는 것인 동시에 조와 핍 자신을 동일시할 정도 우정의 관계에 만족했던 과거의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핍이 조와 과거의 자아에 대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평범함, 대장간의 견습생, 조와의 우정으로 요약되는 일상의 현재(the present)가 시간의 흐름 밖에 있는 핍의 환상 속의 현존(the presence)¹⁰⁾에 의해 방해와 위협을 받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데리다는 우정이 친구 간에 벌어지는 사소한 언쟁 혹은 불화가 있을지라도, 상호 간의 관계는 삶의 방식이나 기대 성향 등을 의미하는 “습관”(habitus)(*Politics* 16)에 대한 확신과 신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핍에게 현실에서 조의 무지하고 지극히 평범하며 투박하고 대장간의 검은 숯이 묻은 외모는 그들의 우정 관계를 영속하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자

10) 현존은 데리다가 이분법적 위계 서열의 논리에 입각한 서구 형이상학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현존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의 개념에 비교될 수 있다. 사이먼 모르건 워샘(Simon Morgan Wortham)에 따르면, 데리다가 말하는 현존의 형이상학은 “신과 같이 의미의 원천이자 초월적 기의의 존재”(103)로서 자아의 동일성과 자아의 일관적 통일성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개념이다.

한계로서 탈바꿈한다. 습관이 현실 속에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동시에 현실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현존의 형이상학에 의해서 열등한 것으로 폄하된다. 뫼은 미스 해비섬과 에스텔라에 관한 현존의 환상에 의해 지배되면서 그가 조와 함께 공유하고 공감했던 습관을 버리고 그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아가 의도적으로 선택”(Webb 123)한 길을 가게 된다. 그 길은 뫼에게 신사가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에스텔라와 사랑할 수 있는 삶이므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대장간이 있는 조의 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뫼은 그의 생일에 미스 해비섬의 저택을 방문한 후 비디와 산책 중에 그녀에게 신사가 되고 싶다고 밝힌다. 비디가 그에게 신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에스텔라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복인 것인지 아니면 그녀로부터 애정을 얻기 위한 것인지 묻고,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그녀가 그에게 한 말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에스텔라는 그가 사랑을 갈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여성이라고 말한다. 뫼 역시 비디의 말을 이해하고 수긍하지만, 에스텔라를 흠모하는 자신을 “불쌍하고 현혹된 상태에 빠진 시골 청년”(129)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현자들도 피할 수 없는 “경이로운 모순”(129)에 빠져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비디와의 대화 순간 만일 옆에 비디 대신 에스텔라가 있었다면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에스텔라는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 예상한다. 비디의 조언이 타당하고 에스텔라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선택이 올바른 것임을 알지만, 그녀의 이미지에 지배된 후에 자신을 “뫼, 너는 참 바보다!”라고 자책한다(130). 스스로에 대해 책망하면서 자신을 모순에 찬 삶을 사는 현자에 견주는 태도는 사랑에 관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면서 자아의 일관성과 동일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뫼이 조와의 우정을 파괴한 행동의 준거로서 작용한 현존의 형이상학은 상상 속 로맨스의 형태로 등장한다. 뫼은 미스 해비섬의 황량한 저택을 재건하는 “로맨스의 젊은 기사의 빛나는 행동”(231)을 하는 주체로서 에스텔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상상 속 이야기를 구성한다. 그는 “이성을 거스르면서, 약속을 거스르면서, 평화를 거스르면서, 희망을 거스르면서, 행복을 거스르면서”(232) 에스텔라를 사랑했다고 인정한

다. 그가 저항의 대상으로 나열한 것들은 조와의 초기 우정 관계에서 그가 경험하고 기대했던 가치이다. 그 초기의 우정은 몽테뉴의 우정과 사랑의 차이에 근간한 주장을 빌려 표현하자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온정”이고 “적당하고 균일하며, 일정하고 안정된 온정”(Montaigne 136)으로 이성과 평화 등과 같은 꺾이 거역했던 가치들에 해당한다. 그는 에스텔라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가 갈망하는 사랑이란 이성적 판단, 평화, 그리고 조와의 우정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광적인 열망”(Montaigne 137)일 뿐이다.¹¹⁾

핍은 조가 읍슬 씨(Mr. Wopsle)와 함께 핍을 만나러 런던에 갈 것이라는 비디의 편지를 받고서 조가 바나드 인(Barnard Inn)을 방문했을 때, 벤틀리 드러믈(Bentley Drummle)이 조를 보게 될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긴다. 핍은 그가 경멸하는 드러믈이 자신의 “최악의 약점과 천함”(218)인 조를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혐오한다. 그는 심지어 “내가 돈을 내서라도 그와 멀리할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돈을 냈을 것이다”(218)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의 존재가 자신과 함께 있는 상황을 거부하려고 한다. 돈을 사용해서라도 조와의 우정을 단절하고자 하는 핍의 속물근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작품의 후반부에 핍의 의지가 아닌 조의 우정에 의해서 실현된다. 핍이 원했던 조와의 우정의 단절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순간은 우정의 영원성이 확보되는 아포리아의 상황이기도 하다. 아픈 핍을 돌보던 조가 핍의 빔을 대신 갚아주고 “핍, 너를 방해하고 싶지 않고, 나는 네가 다시 건강해지고 (나) 없이도 더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떠난다”(472)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다. 조는 추신이라고 적고 “언제나 최고의 친구”(472)라는 문구를 덧붙인다. 비록 그가 핍의 곁을 떠나도 조는 그들의 우정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테리다 철학에서 우정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 린넬 세콤(Linnell Secomb)은 “우정의 영원성”이란 비록 친구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

11) 키르케고르가 사랑과 우정 모두 자아 중심적 욕망, 자아의 선호가 반영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면, 몽테뉴는 우정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행위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반면 사랑은 광적인 열망에 사로잡혀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우정과 사랑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한다.

아도,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친구에 대한 신뢰는 시간성을 초월해서 지속된다고 강조한다. 현재 친구의 죽음으로 현실에서 우정 관계는 성립할 수 없지만, 친구에 대한 자아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기억, 애도, 발화, 서사를 매개로 한 “갱신과 반복”(renewal and re-iteration)을 통해서 우정은 미래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241). 조에게 씬은 언제나 최고의 친구로 존재한다는 믿음은 비록 그들의 우정 관계는 일관되고 견고하게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씬의 회고적이며 자기반성적 서사를 통해서 갱신되고 과거와는 차이를 지닌 반복되는 형태로 지속된다.

4. 동일시와 교감을 통한 우정의 불변성: 씬과 매그위치의 우정

앞서 씬이 에스텔라와의 연애에 대한 환상과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현실의 초라한 자기의 외모, 그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조의 무식함, 호화롭지 못한 생활환경 등을 언급하며 그의 이상과 욕망의 목적이자 대상인 에스텔라, 그리고 그녀와의 연애 및 결혼을 현존의 형이상학으로 설정하고 이에 의해 지배되면서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하는 모습을 우정의 파괴적 양상 차원에서 고찰해 보았다. 또한 씬의 환상으로 인한 우정의 파괴가 조의 씬에 대한 신뢰, 관심, 애정과 결합하여 과거로 회귀하거나 과거의 우정관계가 복원될 수는 없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에 대해 고찰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씬과 매그위치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죄수 매그위치가 씬에게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연민의 대상이며, 그의 연민이 둘을 연결시키고 우정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 준 교감의 의미로 작동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소설 『위대한 유산』은 씬과 매그위치의 관계를 통해서 우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우정은 정형화되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면서 마치 초월적 기의처럼 모든 여러 다양한 우정의 양상을 초월해서 궁극의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가 『철학이란 무엇인가?』(*What*

Is Philosophy?)에서 정의한 대로 “철학은 개념을 창조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의 분야”(5)이고 철학자의 임무는 항상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정의 개념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새롭게 감지되고 다양한 차이를 지닌 유형으로 만들어진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철학적 개념의 탄생은 추상적인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곧 “감지되는 것”(sensibilia)이라고 주장한다(5).¹²⁾ 핼과 매그위치와의 우정은 그들이 공유한 사건을 통해 혹은 둘 사이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각자가 감지한 경험적 맥락이 개념화되어 정립된 것이다. 그러한 경험의 맥락은 실제로 둘이 무덤가에서 마주친 사건과 매그위치로부터 음식과 줄(file)을 가져오라고 위협을 받은 후 핼이 이행한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사회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는가의 정체성으로 인해 서로 연결된다.

핼과 매그위치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질적 존재이다. 핼은 어린 시절 조 부인과 펄블츠크(Pumblechuck) 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은 경험, 즉 “불의와의 끊임없는 갈등”(63)을 겪었다. 버나드 패리스(Bernard Paris)가 지적한 대로, 핼은 매그위치를 통해서 조를 제외하고 그 주변의 타인들로부터 죄인처럼 인식되고 비판받아 온 자신의 이미지가 투영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 탈옥한 죄수를 “자기(핼)의 운명을 상징”(123)하는 존재로 여긴다. 핼은 자신이 익명의 자선가가 베푼 막대한 유산의 수혜자임을 알게 된 후에, 런던에서의 삶을 상상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미래와 과거 그가 음식과 족쇄를 끊는데 사용된 줄을 제공해준 탈옥한 죄수와 만남의 사건을 “도망자와 나의 우정”(147)이라고 말하면서 병치시킨다.

핼과 범죄자의 이미지가 중첩되는 순간은 특히 옵슬 씨(Mr. Wopsle)가 구입한 죠지 반웰(George Barnwell)의 비극에 대한 책을 펄블츠크에게 읽어줄 때이다. 그 비극의 이야기에서 반웰은 그가 사랑한 여인에게 설득되어, 도둑질과 삼촌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 처형된다. 이야기를 듣고 펄블츠크는 핼에게 “아이야, 경고를 받아들여, 경고

12) 들뢰즈와 가타리는 우정이란 “육망하는 대상을 향해 사랑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면서 “경쟁자에 대해 경쟁하듯이 이루어지는 불신”이라고 규정하며 우정의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What Is Philosophy?* 4).

를 받아들여!”라고 말한다(117). 펄블츄크는 핍을 반월과 동일시해서 그에게 도덕적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다. 펄블츄크의 핍을 향한 근거 없고 불합리한 훈계와 비난은 우정과 신뢰의 문제에 관하여서 역설적이게도 매우 합리적이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고로 뒤바뀐다. 음식과 줄을 훔쳐서 탈옥한 죄수에게 가져다 준 행동, 에스텔라를 사랑하고 환상을 품은 후 조를 원망하며 그를 외면한 것은 핍이 마치 조를 상징적으로 살해함으로써 그와의 우정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이다. 신사가 되기 위해 간 런던 역시 건강한 삶의 유지나 정의 수호의 명분으로 “잔혹한 행위와 처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일종의 “시체 안치소”에 비유된다(Wolfreys 110).

핍의 환상은 익명의 후원자가 미스 해비섬이며 그녀가 그와 에스텔라를 결혼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환상은 조와의 우정관계의 파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매그위치가 그의 후원자임이 밝혀지자 신사가 되는 과정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된다. 핍은 매그위치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태를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작품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818)에 등장하는 빅터 프랑켄슈타인(Victor Frankenstein)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과 비교하면서 핍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함을 표현한다.

자신이 불경스럽게 만든 기형적 생물에 쫓기던 상상에 빠진 연구자는 나를 만든 생물에 의해 쫓기는 나보다 더욱 비참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에게 더욱 강한 혐오감을 느끼면서 뒷걸음칠수록 그는 나를 더욱 감탄하며 바라보고 나를 더욱 좋아했다.

The imaginary student pursued by the misshapen creature he had impiously made, was not more wretched than I, pursued by the creature who had made me, and recoiling from him with a stronger repulsion, the more he admired me and the fonder he was of me. (339)

핍은 자신을 과학자이고 창조자인 프랑켄슈타인에 비교하고 매그위

치를 괴물에 비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핍은 스스로 언급하듯이 자신이 괴물과 같은 매그위치에 의해 막대한 재정적 후원을 받으며 신사가 되도록 만들어졌음을 시인하고 있다. 핍은 매그위치와의 관계에서 이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마치 사회적 신분상 열등하고 죄를 지은 괴물과 같은 매그위치에 의해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그가 신사라는 사회적 신분과 교양을 쌓고 고상하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놓인 자이지만, 실제로 현재의 그를 있게 한 존재는 미천한 신분의 죄수 매그위치이며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핍은 그의 역할 및 정체성의 본질이 그가 혐오하고 벗어나려는 매그위치에 의해서 규정되고 성립되는 아포리아를 경험한다.

매그위치는 일관되게 핍을 그와 운명을 나눈 친구로 여긴다. 그는 핍과 허버트 퍼킷에게 자신의 생애를 여러 차례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으로 요약하면서, 그 이전에 “핍은 내 친구로서 있었다”라고 말한다(346). 매그위치의 삶을 변화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어린 핍이 늘지대 근처 무덤에 숨어있던 그에게 가져다준 빵 등의 음식과 줄 때문이 아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우정이라는 개념”(Hornback 65)으로 우정은 매그위치에게 동물적 생존의 욕망과 육체적 자유의 열망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¹³⁾ 핍이 매그위치에게 친구로서 있던 장면은 구체적으로 당시 탈옥한 채로 늘지대 근처 무덤가에 은신해 있던 매그위치를 위해 핍이 가져온 음식을 그가 먹고 핍은 그것을 보며 서있던 순간이다. 핍은 탈옥한 죄수가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는 것을 보면서 그의 황량한 처지를 측은하다고 느끼면서 “당신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좋습니다.”(I am glad you enjoy it)라고 말하자 죄수는 “고맙다, 아이야. 맛있다.”(Thankee, my boy. I do)라고 화답한다(19). 죄수의 발언에서 사용된 ‘나의’(my)라는 소유격 한정사는 작품의 초반부터 핍과 매그위치 간에 연민과 고마움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었고 이는

13) 혼백은 우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companionship’의 어원은 두 라틴어의 조합, 즉 ‘함께’를 뜻하는 *cum*과 ‘빵’을 뜻하는 *pane*이 합성된 것으로 ‘빵을 함께’라는 의미로 우정을 이루는 행위는 ‘빵을 함께 나누는’(bread-sharing)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66).

매그위치가 핍을 친구로 생각하게 된 계기이자 그에 대한 믿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이다. 그리고 핍에 대한 그의 믿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한 불변성에 부합한다.

피터 브룩스(Peter Brooks)의 주장대로, 핍이 죄수 매그위치와 처음 마주친 사건에서 경험한 “교감”(communion)(117)의 장면은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건들의 핵심이 되는 “억압된 플롯”(117)이다. 핍이 무덤가에서 매그위치를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에게 음식과 줄을 주는 행위는 소설 속 핍의 환상, 조와 형성했던 우정의 붕괴, 신사가 되는 과정 등 여러 플롯을 연결 짓는 중심 플롯으로 작용한다. 동정심, 교감, 혹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용어로 ‘감지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인식한 매그위치와 핍은 우정을 통해 연결된다. 핍의 “죄수와 의 동일시”(Brooks 118)는 매그위치를 향해 핍이 느낀 최초의 공포를 넘어선 연민과 친밀감 그리고 성인이 된 후 그 죄수가 바로 막대한 유산의 제공자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그로부터 느낀 진정성과 일관성은 우정이라는 어휘로 다시 표현된다.

소설의 후반부에 매그위치는 컴페이슨(Compeyson)과 보트 위와 강물에서 싸움을 벌이고 크게 다치게 된다. 그 후 체포되고 구금된 매그위치에 대해 핍은 그의 변함없는 후원과 애정을 느끼고 그의 진정성 높이를 평가한다.

이제 그에 대한 내 반감은 모두 녹아내렸고, 내 손을 잡은 쫓겨 다니고 다치고 족쇄를 찬 존재에게서 내 후원자이자,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변함없이 나를 애정으로, 감사히, 너그럽게 대해준 사람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서 조보다도 더 옥더 좋은 사람을 보았을 뿐이다.

For now, my repugnance to him had all melted away, and in the hunted wounded shackled creature who held my hand in his, I only saw a man who had meant to be my benefactor, and who had felt affectionately, gratefully, and generously, towards me with great constancy through a series of years. I only saw in him a much better man than I had been to Joe. (446)

위의 인용문에 서술된 핍의 매그위치에 대한 인식은 핍의 겸손함이나 “자아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는 태도”(Trotter viii)가 아니다. 그것은 죄수 매그위치는 핍을 향해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되는 우정의 가치를 체화하고 실천하려 한 인물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epiphany)이다.

이 우정의 가치에 관한 현현적 인식의 순간과 핍과 조 사이의 초기 우정의 양상에서 서사의 후반부로 향하는 과정에서 돋보이는 핍과 매그위치의 우정 관계로의 전환은 핍이 어린 시절 식탁에서 빵을 숨기는 장면에서 상징적이고 암시적으로 예견된다. 음식과 줄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죄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핍은 조와 저녁 식사 때 평소와 마찬가지로 빨리 음식 먹기 친선 경쟁을 하면서 몰래 버터 바른 빵을 다리 아래에 숨긴다. 핍의 음식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본 조는 핍에게 “너와 나는 항상 친구이고, 어떤 경우라도 친구의 행동에 대해 남에게 일러바치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12)고 강조하면서, 여태까지 핍처럼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놀란다. 그러면서 조는 “너무 급하게 먹어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it’s a mercy you ain’t Bolted dead)(12)라고 말한다. 조가 사용한 단어 ‘급히 먹어 치우기’(Bolt)에는 다중의 의미가 존재한다. 이 상황에서는 음식을 씹지 않고 삼켜버리듯 급하게 먹기의 의미를 갖지만, 어떤 물체나 사람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급속하게 이동하는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핍의 버터 바른 빵이 식탁에서 핍의 다리 아래로 순식간에 이동하면서 핍의 생각이 조와의 친근한 시합의 상황에서 탈옥한 죄수의 협박과 그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긴장감, 그리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일에 대한 두려움의 상황으로 급속히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정 관계의 이동과 관련해서 향후 핍과 조의 우정이 매그위치와 핍의 우정 관계로 변모되면서 핍이 매그위치를 “조보다도 더욱 좋은 사람”(446)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핑이 숨긴 버터 바른 빵이 탈옥한 죄수에게 전해진 후, 이를 통해 핍에 대해 감사와 은혜뿐만 아니라 상호 교감을 감지한 매그위치는 그 빵

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핍의 삶의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핍에게 우정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든다. 빵을 함께 나눈다는 어원적 뜻을 가진 우정이라는 단어는 소설의 초반 핍과 조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습관이자 놀이인 빵을 빨리 먹기의 관습적 의식에서 둘의 친밀한 관계를 서술하는 어휘였다. 그러나 핍이 그들만의 고유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빵을 매그위치라는 인물에게 전달하는 순간 그 빵은 앞서 브룩스가 강조했던 핍과 매그위치 간의 교감을 이루게 하는 “억압된 플롯”(117) 형성의 매개물로 작동한다.

5. 나오는 말

디킨즈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비평가들의 주된 해석은 작가가 핍을 통해서 현실 인식을 결여하고 오로지 야망에 차 있는 인간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폭로하고 있고, 주인공 핍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함으로써 성공을 이루겠다는 “자기 결정력과 노력이라는 전통적 미덕”(Douglas-Fairhurst 143)을 결여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만, 전통적 미덕 중 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우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핍을 단순히 우정의 가치를 도외시한 인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는 자전적 서사를 통해서 조의 우정이 평범하지만 진정성과 불변성을 내포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밝힌다. 비록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핍은 빅토리아시대에 미덕으로 여겨진 노동, 근면, 자립의 정신 대신에 속물근성을 보이고 거만하게 행동하면서 조와의 우정을 파괴한다. 그러나 핍과 조의 우정의 양태는 회복 불가능한 우정의 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우정의 가치와 희소성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에 관한 사상에 대한 몽테뉴의 이율배반적 발언, “아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네.”(140)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우정의 형태를 의미하면서 불변성의 우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친구란 없음을 강조하고 우정의 성립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다양한 우정의 성립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핍과 조의 우정 관계는 조의 핍에 대

한 영원한 친구로서의 이미지, 뫼 또한 조의 그를 향한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물질적 도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로서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지속 가능하게 된다.

뫼이 얻은 위대한 유산은 표면적으로 그를 후원한 매그위치로부터 받은 막대한 재산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상징적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가 바라는 엄청난 기대, 미래의 부와 영광을 바라는 기생충과 같은 풍요로움”(Johnson 989)을 뜻한다. 그러나 그가 결국 얻은 위대한 유산은 우정의 파괴를 통해서 우정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가 품은 낭만적 상상은 매그위치가 익명의 후원자였음이 밝혀지자 물거품이 되고 그로 인해 뫼의 상상적 자아는 소멸되지만, 어린 시절 그가 매그위치와의 만남을 통해 나눈 교감의 장면은 서로를 친구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정의 기원으로 작용한다. 매그위치는 뫼에게 일관되고 자기희생적이며 변하지 않는 우정의 가치라는 위대한 유산을 안겨주는 진정한 은인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데리다는 우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될 수 있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아와 타자의 우정은 서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우정은 시간의 흐르는 과정에서 “안정화의 시련”(Politics 16)을 겪음으로써 지속된다. 우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러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관계가 유지된다면 시간을 초월해서 우정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역설을 성립시킨다.

[ABSTRACT]

Aporia of Friendship in Charles Dickens's *Great Expectations*

Koo Seung-bon(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aporia of friendship in Charles Dickens's *Great Expectations*. Aporia, which signifies the paradoxical impasse, can be used to describe the aspects of an undecidable contradiction in Pip's close relationships with Joe and Abel Magwitch. Beyond Aristotle's idea of friendship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stancy as the apex of virtues, Jacques Derrida highlights the aporetic nature of friendship with regard to both the possibility and the impossibility of constant friendship by projecting the ideal image of the self onto one's friend as the other. Gilles Deleuze's concept of limit-situations and secrets can help embrace a variety of friendship by understanding the unrealizable conflicts between the friends as one of the key components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friendship. Rather than the absolute truth like the transcendental signified of essence, friendship can be conceived of as an invaluable virtue transformed into the concept of faith in the passage of time. This paper explores the logics of self-destruction and of self-preservation embedded in the predicaments of friendship both between Pip and Joe, and between Pip and Magwitch, as their friendships can persist through communion in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self and the other.

Key words: Charles Dickens, Great Expectations, Friendship, Aporia, Event, Communion, Constancy

[참고문헌]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1976.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Roger Crisp. Cambridge: Cambridge UP, 2000.
- Brooks, Peter. *Reading for the Plot: Design and Intention in Narrative*. Cambridge: Harvard UP, 1984.
- Cicero, Marcus Tullius. *On Old Age, Friendship, and Divination*. Trans. William A. Falconer. Cambridge: Harvard UP, 1923.
- Collins, Philip. Ed. *Charles Dickens: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1986.
- Deleuze, Gilles. *Two Regimes of Madness*. Ed. David Lapoujade. Trans. Amie Hodges and Mike Taormina. New York: Semiotext(e), 2006.
- and Félix Guattari. *What Is Philosophy?* Trans. Hugh Tomlinson and Graham Burchell. New York: Columbia UP, 1994.
- Derrida, Jacques. *The Politics of Friendship*. Trans. George Collins. London: Verso, 1997.
- Dickens, Charles. *Great Expectations*. 1860-61. Ed. Charlotte Mitchell. London: Penguin, 1996.
- Douglas-Fairhurst, Robert. "Charles Dickens." *The Cambridge Companion to English Novelists*. Ed. Adrian Poole. Cambridge: Cambridge UP, 2009. 132-148면.
- Fumerton, Richard. "Friendship and Self-Interest."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Friendship*. Ed. Diane Jeske. New York: Routledge, 2023. 456-474면.
- Gilmour, Robin. *The Idea of the Gentleman in the Victorian Novel*. New York: Routledge, 2016.
- Haddad, Samir. *Derrida and the Inheritance of Democracy*. Bloomington: Indiana UP, 2013.
- Hornback, Bert G. *Great Expectations: A Novel of Friendship*. Boston: Twayne, 1987.
- Johnson, Edgar. *Charles Dickens: His Tragedy and Triumph*. Vol. 2.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52.
- Kierkegaard, Søren. *Works of Love*. Trans. Howard and Edna Hong. New York:

- Harper Perennial, 2009.
- Lambert, Gregg. *Philosophy after Friendship: Deleuze's Conceptual Personae*.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17.
- Montaigne, Michel de. "Of Friendship."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Trans. Donald M. Frame. Stanford: Stanford UP, 1958. 135-144면
- Nehamas, Alexander. *On Friendship*. New York: Basic Books, 2016.
- Paris, Bernard, J. *Imagined Human Beings: A Psychological Approach to Character and Conflict in Literature*. New York: New York UP, 1997.
- Pykett, Lyn. *Charles Dickens*. Basingstoke: Palgrave, 2002.
- Schweizer, Florian. "The *Bildungsroman*." *Charles Dickens in Context*. Ed. Sally Ledger and Holly Furneaux. Cambridge: Cambridge UP, 2011. 140-147면.
- Secomb, Linnell. "Performing Friendship." *Derrida and Queer Theory*. Ed. Christian Hite. Goleta: Punctum Books, 2017. 234-249면.
- Telfer, Elizabeth. "Friendship." *Other Selves: Philosophers on Friendship*. Ed. Michael Pakaluk.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1991. 250-267면.
-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2000.
- Trotter, David. Introduction. *Great Expectations*. 1860-61. Ed. Charlotte Mitchell. London: Penguin, 1996. vii-xx면.
- Webb, David. "On Friendship: Derrida, Foucault, and the Practice of Becoming." *Research in Phenomenology* 33(2003): 119-140면.
- Wolfreys, Julian. *Dickens's London: Perceptions, Subjectivity and Phenomenal Urban Multiplicity*. Edinburgh: Edinburgh UP, 2012.
- Wortham, Simon Morgan. *The Derrida Dictionary*. London: Continuum, 2010.